

향기로운 예물

십일조현금

기일 085-056206-04-030(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윤희진(최유경), 김성종, 이필례, 강준식(김정연), 김경태, 김기택(배속자), 김병율(이영숙), 김순석(임영득), 김윤주, 김종진(한안나), 김지한(유소경), 김진희, 김춘화, 박영식(성미영), 배경철(김순화), 백성원(안지영), 유일환, 유현호(이영미), 유호근(손영화), 윤정호(유옥자), 이선미, 이소은, 이옥남, 이일로, 이한철(박희영), 임만순(서영숙), 정옥순, 채희춘(황영록), 전세혁, 최기훈(정계숙), 최선미, 최성환.

선교현금

기일 085-056206-04-086(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윤희진, 이필례, 최유경, 김준석(임영득), 김준구(이소은), 김춘화, 박권제, 박복례, 박희영, 서재혁, 심찬, 유정현(유형도, 유정화), 이선미, 이한철, 이향교, 임형문, 정옥순, 채명업, 최기훈(정계숙), 최성환, 최순재, 현승건(이윤옥), 황영옥, 권사회, 무명.

감사현금

이필례, 강봉석, 김경태, 김병율(이영숙), 김수자, 김순석, 나미경, 박부웅(최귀남), 백경자, 이선미, 이춘호, 전영선, 청년부, 최기훈(정계숙), 최태님, 무명.

일천번제현금

이진우, 윤희진, 아필례, 김민성, 김민혁, 김수현, 김청숙, 김춘화, 민옥희, 박복례, 박은숙, 박희영, 배병찬, 서재혁, 송명숙, 송백현, 신자현, 신현진, 심순옥, 안지영, 양영옥, 양일석, 이강우, 이노을, 이경자, 이미영, 이설아, 이옥남, 이인숙, 주성탁, 최봉순, 최선미, 무명.

주간 성경연구 · 주일 5장, 평일 3장씩 읽으세요. ·

2014년 제 32주 : 예레미야 52장 - 에스겔 17장

주 일	예레미야 52장 - 예레미야애가 4장		
월요일	예레미야애가 5장 - 에스겔 2장	목요일	에스겔 9 - 11장
화요일	에스겔 3 - 5장	금요일	에스겔 12 - 14장
수요일	에스겔 6 - 8장	토요일	에스겔 15 - 17장

시무장로 이태일 정기성 윤조훈 방석태 이일로 전세혁 윤병호 강영성 김병을 최기훈 윤정호 배경철 임만순

온퇴장로 오만식 방현욱 장영원 이해석 정공식 이원가 문영원

교역자	부 목사	윤희진
	전도사	김성종, 이필례
	교육전도사	이송이, 최유경

찬양대	자휘자	할렐루야 : 김한나 시온·에덴 : 최원지	호산나 : 김안나 엔젤 : 이난수
	반주자	상혜윤	
	피아노	강민주 김상훈 김미희 유광희 이주하 정혜지	
	클라리넷	박진숙 이난수	
	플룻	김민지	

선교사	솔리스트	김안나 김혜진 고광훈 장명환 고승진
	파송선교사	태국 : 김정숙 수리남 : 안석렬 이성옥 A X국 : 박동원 김명화
	협력선교사	태국 : 박영성 정세미 멕시코 : 김홍기

협력교회	제주 대광장로교회
협력단체	서울남노회 목양선교회, 소망교도소, 영등포시찰회 용정선교회

2014. 8. 24. 주일 예배 설교

성도를 섬기는 일

본문: 고린도후서 9장 1절

설교 : 이진우 목사

성도의 사역은 하나님을 섬기며 이 땅에서는 성도를 섬기는 일입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를 물는 서기관에게 예수님이께서는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옥수를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막 12:29~31)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첫째, 둘째라는 헬라어 “프로데”와 “듀테라”는 시간적인 순서를 가리키는 것으로 연속되는 일에 대하여 말씀하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자”란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고린도교회는 성도를 섬기는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1.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1) 이미 8장에서 고린도교회를 통하여 고난과 펑박 속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마게도나의 교회들과 같이 풍성한 연보를 전연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교회는 디도를 중심으로 힘에 넘치는 풍성한 연보를 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형제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이 땅 가운데 가난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2) 그렇다면 어떻게 도와야 합니까? 사랑으로 공평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병든 것을 도와 치료를 위해 힘써야 하며, 마음이 상심한 것을 도와 용기와 격려로 세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3) 진실로 이 땅에 참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합니다. 자체하지 말고 즉시 해야 합니다. 지금 나의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도움을 구하고 필요로 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육신의 필요를 채워 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주었습니다.

1) 우리는 보이는 세상에 살아갑니다. 오감을 만족해야 기쁨을 얻고 체험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기 때문입니다. 육적인 세계뿐 아니라 영적인 신령한 세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육적으로 만족하여 그것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그칠 것이고 썩어지며 없어질 것임을 알고 신령한 영적인 것을 일으므로 바라보며 증거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2) 분명 우리 예수님이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는 자마다 육신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길을 바로 찾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요 14:26)고 하셨고, “주의 말씀은 내 밭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시 119:105)라고 시편 기자는 찬양합니다. 이 말씀을 받는 자마다 치료를 받으며 그 삶의 위기에서 구원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3) 때문에 성도는 신령한 말씀을 불들며 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 하여 육적인 양식뿐 아니라 영의 양식을 채워주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 하심으로 영혼의 만족을 주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3. 성령으로 인도하는 일을 순종으로 행했습니다.

1) 우리가 도와야 할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눈은 있으나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들입니다. 그들은 마치 눈에 보이는 세상이, 물질이, 영예가 세상의 전부인줄 알고 그곳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러나 성도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물질 세계의 끝은 영원한 죽음일 뿐입니다. 성도는 이러한 영적인 소경을 바른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2) 또한 우리의 자녀와 어린 자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나이가 어려서 어린 자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자라나지 못한 영적인 어린아이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신령한 젊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일으�이자라며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길 잃은 자에게 길을 찾아주고 생명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3) 그런데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에 우리가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 앞서 내 형편을 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도를 놓고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기도하며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시며 성령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고, 환경을 이기며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하는 권세를 얻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섬길 때 그 곳에 그리스도의 참 사랑과 풍성한 은혜,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 질것입니다(갈 5:13). 이 한주간도 믿음으로 성도를 섬기며 나의 도움이 필요한 많은 자들을 믿음으로 사랑하며 섬길 때 그 곳에 그리스도의 참 사랑과 풍성한 은혜,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 질것입니다(갈 5:13). 이 한주간도 믿음으로 성도를 섬기며 나의 도움이 필요한 많은 자들을 믿음으로 사랑하며 섬길 때 그 곳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SINCE 1975-2014

No. 40 - 35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Sung - Hyeon Presbyterian Church

표어: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시편 81편 10절)

목표: 1.진리 파수 2.천국일꾼 양성 3.민족 복음화 4.세계 선교



동산의 샘

A garden fountain

생수의 우물

A well of living

흐르는 시내

Flowing streams

[아가 4:15]

담임 목사

Senior Pastor

이진우

Yee, Jin Woo

● 152-090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33 마길18(개봉동)

● 18Gyeongin-ro 33Ma-gil, Guro-gu, Seoul, Korea

● 교회사무실 : 2613-2080 / 2683-2080 / 070-8658-2080

● 팩스 : 2689-1230

● 홈페이지 : www.sunghyeon.or.kr

